

[추천도서]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총서 《삿갓봉의 웃음》 출간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편집한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총서 《삿갓봉의 웃음》이 일전에 연변교육출판사에 의해 출판 발행되어 독자들과 대면하였다.

중국조선족 제 1대 연극인이며 중국조선족 '삼로인' 극종의 우수한 견인자인 홍성도(1928~1986) 선생이 창작, 편곡한 중국조선족 '삼로인'(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극본과 중국조선족재담, 만담(길립성 무형문화유산) 극본, '삼로인' 극종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주제로 한 《삿갓봉의 웃음》은 중국조선족 구연예술의 형성과 '삼로인'의 산생 및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독자들에게 펼쳐보여 '삼로인' 연구에서 교과서와 같은 도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전임 주임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무형문화유산



전문가소조 조장인 리임원은 책의 머리말에서 "조선족 연예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열을 발산하다가 60년



도 안되는 짧은 인생을 마감한 홍성도선생은 생전에 리론저서 《연극개론》을 구성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유감으로 남게 되었다. 홍성도선생의 타계 40돐에 즈음하여 이 책을 묶어서 그 유감을 달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책에 수록된 선생의 작품을

통하여 1949년 이후 우리나라가 걸어온 풍운의 역사와 중국조선족 구연예술의 발전 과정을 해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삼로인'은 1950년대를 시작으로 홍성도 등 연극인들의 피터는 로고와 창의력에 의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 자리매김하였다. 홍성도(연변작가협회 회원) 선생은 1946년에 길동군구 정치부문공단 연극배우, 연변연극단 극작가로 활약하다가 1986년에 타계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7막극 〈눈 속에 편 꽂〉(1981년 제1회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상 수상), 삼로인 〈회의로 가는 길〉, 〈삿갓봉의 전설〉 등이 있으며 가사, 동시, 수필, 단편소설도 창작한 바 있다.

/ 김태국기자

연길소년아동도서관, 서비스 모델 전환으로 전민독서 추진

최근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에서는 '책을 고르면 대신 계산해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온라인 책 고르기 행사를 개최하여 독자들이 도서관 책 고르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참여도가 효과적으로 높아졌고 도서관의 장서 품질도 향상되었다.

'온라인 선택 + 무료 배송'을 핵심 서비스 모델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많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행사 기간 추천된 루적 구매 도서는 300여권에 달했는데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고전 명작과 베스트셀러 신간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도서는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인기 있는 도서를 보완하고 가족 독

서 자원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메웠다. 또한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며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로 거리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독자 주도형 구매' 방식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행사 기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민독서가 더 깊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도서관이 독자들의 '곁에 있는 책장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가혜기자



여가와 배움의 공간— 국가도서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국가도서관을 찾아 도서관의 따뜻하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배움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 신화사



**辛勤劳动
万事如意**

图说
社会主义核心价值观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河南舞阳 周松晓作

[현대 서점의 도전]

'방문인증'을 넘어 '진정한 독서'로…

— 디지털 시대 서점이 걸어갈 새로운 길



을 유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시적 방문객'을 '꾸준한 리옹객'으로 전환하고 단순한 공간 방문객을 적극적인 독서 참여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는 서점이 단순한 '문화 배경'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객이 '구경꾼'에서 '몰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레를 들면 '도시의 기억', '심리치료', '음식과 인간관계' 등의 주제별 도서 목록을 기획하여 독자의 생활 경험과 감정적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함으로써 책과 독자의 삶이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하고 독서가 현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장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독서 자체가 지니는 사적이고 내향적인 특성도 존중해야 한다. 사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서점은 '조용한 모퉁이'를 마련해줄 수 있으며 '아침 10분 독서'나 '잠들기 전 두페이지'와 같은 가벼운 습관을 장려하여 독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게 할 수 있다. 이울러 '온라인 함께 읽기', 오프라인 혼자 읽기'와 같은 행사를 통해 독자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여 사교적 압박감 없이도 독서가 주는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인증' 사진촬영이 일상이 되고 시각적 소비가 만연한 현재, 책이 부자적인 위치로 밀려나는 현상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서점에는 찾아오지만 정작 '책을 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점의 다양화와 복합화는 본질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의 일환이며 전통 형태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전민독서'는 서점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 시민들의 일상에 진정으로 스며들어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자발적인 선택이 되었는지에 있다.

서점은 사람들을 독서라는 세계로 이끄는 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문을 연 뒤의 길은 결국 각자가 걸어야 한다.

더 많은 서점이 '외관의 매력'을 넘어 '내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이 아닌 '독서의 등불'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보자. 빠른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온한 숨결을 제공하고 '이 책은 정말 깊이있게 읽어보고 싶어.'라는 순수한 열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유형의 서점이 지닌 깊고 장대한 사명이 아닐가 싶다.

/ 길림일보